

에 대하여 방사선과치료를 시작하여 실신의 빈도및 지속시간이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실진의 정확한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발 시험을 계획 중이다.

7

경부에 발생한 원발부불명 전이암에 대한 고찰

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

이국행 · 심윤상 · 오경균 · 이용식

저자들은 1988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,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하여 원발부불명 경부전이암으로 확진된 40례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, 그 임상상, 원발부위에 대한 진단학적 고찰, 치료와 추적관찰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- 1) 남녀비는 4 : 1(32 : 8)이었다.
- 2) 연령별로는 60대 13명(32.5%), 50대 12명(30.0%), 40대 7명(17.5%)의 순 이었다.
- 3) 내원 당시 주소는 경부종피 39례(양측 3, 좌측 16, 우측 20), 애성 1례 이었다.
- 4) 주소발현에서 내원까지의 기간은 1~6개월사이가 29례(72.5%)로 가장 많았다.
- 5) 병리조직학적 분류는 편평세포암 25례(62.5%), 저분화암 7례(17.5%), 미분화암 5례(12.5%), 선암 2례(5.0%) 등 이었다.
- 6) 전이 림프절의 위치는 좌측 경정맥림프절 21례(33.3%), 우측 경정맥림프절 15례(23.8%), 좌측

쇄골상림프절 6례(9.5%), 우측 쇄골상림프절 5례(7.9%) 등의 순이었다.

7) 병기별 분류는 N1 1례(2.5%), N2a 2례(5.0%), N2c 5례(12.5%), N3 15례(37.5%)이었다.

8) 치료는 수술 및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경우가 12례(30.0%)로 가장 많았고,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조사 9례(22.5%), 수술과 방사선조사,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시행한 경우가 9례(22.5%) 등의 순이었다.

9) 치료 기간중 원발부위가 밝혀진 경우는 9례였으며, 폐가 3례로 가장 많았다.

8

비강및 부비동에 발생한 Immature Teratoma 2례

서울의대 이비인후과

성명훈 · 유원석 · 박현민

비강및 부비동에 발생한 immature teratoma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이제까지 모두 수 례가 보고된 바 있다. 병리학적으로는 multiple germ cell layer 기원의 미성숙, 기형적 세포(immature & abnormal cell)를 보이며, 임상적으로는 원발병소의 재발이 흔하며 원격전이를 잘 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. 치료는 근치적 수술(extirpative surgery)을 포함한 combined approach가 주효하다.

저자들은 최근 비강및 부비동 기원의 immature teratoma 환자를 치료하였기에 이제까지 경험한 2례를 모아 보고하는 바이다.